



전남도약사회, 독거 어르신 내의 나눔

전남도는 전남도약사회로부터 독거 어르신들께 전달할 2200만원 상당의 겨울 내의 600벌을 기탁받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남도청에서 지난 10일 열린 전달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기석 전남도약사회장, 오세현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기탁받은 겨울 내의는 전남도약사회 회원 1364명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남 17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조기석 회장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 이웃을 돕고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남도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명창환 부지사 또한 전달식에서 “매년 전남도약사회에서 온정을 나눠 깊이 감사드린다”며 “추운 겨울,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산기후기금장터, 취약계층에 기부금 전달

광주 광산구는 (사)시민생활환경회의 등 11개 단체가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달라며 광산기후기금장터의 수익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전달식에는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유)광주학교급식청렴홍보협의회,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환경 보호와 이웃 사랑을 실천한 기후기금장터의 취지를 되새기며,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짐했다. 이번 기부금은 광산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후기금 장터에서 모금됐으며, 1700여만원의 기부금에 환경보호와 이웃사랑을 담았다.

‘광산기후기금장터’는 지난 10월 원당산공원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체험활동을 진행했으며, 기후 변화 대응과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들의 실천을 촉진하는 자리다. 김성철 기자



전남도체육회, 제2차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 성료

36개 스포츠클럽 사무국장 등

전남도체육회는 10~11일 전남도체육회관과 목포 폰타나호텔에서 ‘2024년 제2차 전남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도내 스포츠클럽의 상생 및 성장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남의 36개 공공스포츠클럽(종합형 19개, 한종목 17개) 사무국장 및 행정직원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첫 날에는 △김유경 한국재정정보원 교육강사의 ‘e나라시스템 정산 및 이월과정 교육’ △신세영 스포츠안전재단 강사의 ‘스포츠안전교육’ △만찬 및 소통 등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백유숙 영암세한스포츠클럽 사무국장과 김선행 무안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이 스포츠클럽 성과를 공유하는 사례 발표에 이어 최윤희 음약연구소 대표의 ‘영화와 함께하는 힐링뮤직’을 주제로 한 특강이 펼쳐졌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에는 210여개의 스포츠클럽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남은 가장 많은 36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수뿐만 아니라 자립과 운영에서도 최고의 스포츠클럽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제1회 전남스포츠클럽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2025년 예산으로 4000만원을 확보했다”며 “전남도체육회에서는 앞으로도 건강한 스포츠클럽,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스포츠클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광주사회적경제기업 26곳, 간편식 기부

광주사회적경제 선도기업 26개사가 지난 10일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해달라”며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컵밥·컵라면 등 간편식을 기부했다. (사진)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전달된 기부물품은 530만원 상당의 컵밥·컵라면 등 간편식 2680개로, 광주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11개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사회적경제 선도기업들은 지난 2021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해마다 사회공헌활동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번 기부활동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기부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 가치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적경제를 선도하고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김수현 교수, 질병청장 표창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수현 교수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기념해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11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7년부터 KorGLASS(Korean 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GLASS) 사업의 주요 부분인 ‘국내 다제내성균 조사 분석센터 운영 및 특성 분석’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항생제 내성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또 KorGLASS사업 장구균(Enterococcus) 분석센터장, KorGLASS사업 총괄 분석센터장을 맡으며 국내 항균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장알균(VRE)을 포함한 주요 다제내성균의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국가 감염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 제공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향상에 힘쓴 점도 인정받았다. 노병하 기자



호남대 정승연·김다영, 월드 셰프 컬리너리컵 ‘금상’

“성공한 외식창업가 꿈 이룰 터”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와 정승연·김다영 학생(3학년)이 지난 7일 대전 컨벤션센터 제 1전시장에서 열린 ‘2024 월드 셰프 컬리너리컵 코리아’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며 금상을 수상했다. (사진)

마스터셰프한국협회와 ACEEA 로마니아에서 주최하고 (사)한국음식조리문화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국제요리경연대회는 조리 인재 조기 발굴·육성을 통한 국내 조리 분야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정승연·김다영 학생은 전국 유수의 대학들이 참가해 경쟁을 펼친 라이브

부분에서 금상을 받았다.

두 학생은 아보카도 퓨레를 곁들인 연어 그라브락스로 에피타이저 요리를, 단호박옥수수 퓨레를 곁들인 치킨 롤라드로 메인 디쉬를, 흥시 무스케이크로 디저트를 만들어 호평을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승연·김다영 학생은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해서 많이 긴장했는데, 학교 전공수업과 비교프로그램에서 배운 실력을 차분하게 발휘한 게 예상치 않은 수상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 외식창업 분야에서 더 많이 배우고 정진해 창업에 성공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동환 기자



광주시체육회, 임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광주시체육회는 9일 광주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사무처 임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이날 교육은 사무처 임직원과 종목별 지도자, 선수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 강사인 김재호 강사를 초청해 인권과 관계 감수성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 교육이 이뤄졌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으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및 가치관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도자와 선수,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나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인재육성기금

나주 다도면에 위치한 해피니스컨트리클럽(회장 양진석)은 최근 (재)나주교육진흥재단에 지역인재육성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해피니스컨트리클럽은 지난해에도 인재육성기금 2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해피니스컨트리클럽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 기부 누적액이 현재까지 9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지역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윤병태 나주시장은 재단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인재육성기금 사업을 소개하며 양진석 회장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윤병태 시장은 “작년에 이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한 재원을 기부해주신 양진석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 해소와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기부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지드래곤, ‘가요대전’ 8년 만에 출연... 라인업 화려해

한류그룹 ‘빅뱅’ 멤버 겸 솔로가수 지드래곤(G-DRAGON·권지용·사진)이 8년 만에 SBS TV 연말 축제 ‘가요대전’에 출격한다.

11일 SBS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25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4 SBS 가요대전’의 최종 라인업 아티스트로 포함됐다.

지드래곤은 최근 7년여 만에 솔로 신곡 ‘파워(POWER)’,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을 발표하

며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는 등 연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드래곤이 ‘가요대전’에 출연하는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드래곤은 올해 연말 시상식에 연이어 등장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지드래곤은 내년 상반기 중 새 앨범을 내놓을 예정이다. 뉴시스

